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8. 31. ~ 9. 6.

전남농업정보

49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산 애호박, 토마토 재배동향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양념채소 가격동향

전남 시·군정 동향

보성군, '청정 녹차고추' 수확 한창

광양매실, 추석 맞아 '2015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 참가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FTA 활용으로 농수산물식품 수출산업화 지원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밥맛최고! 쓰러짐에 강한 조생종 고품질 쌀

아열대채소 가공 체험 프로그램, 인기 만점!

정책동향

전남도, 귀농·귀촌인 유치 쟁걸음

해외 농업정보

핀란드, 식품 소비 동향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기압골의 영향으로 9월 3일과 5~6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5~23도, 최고기온: 24~29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3~14mm)보다 많겠음

※ 농작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애호박, 9월 정식의향 증가, 10월은 비슷
- 토마토, 9~10월 정식의향 전년 대비 1% 감소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무 · 배추

- 무 : 작년보다 높은 평당 10,000~12,000원 수준
- 배 추 : 작년(6,310원/10kg) 및 평년(8,599원/10kg)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양념채소 : 건고추 · 대파

- 건고추 : 수확기 이후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대 파 : 전년과 평년 대비 강세가 이어질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보도자료)

- ▶ 보성군, '청정 녹차고추' 수확 한창
- ▶ 광양매실, 추석 맞아 '2015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 참가!
- ▶ '완도 자연그대로' 고추에 물만 바꿨는데...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FTA 활용으로 농수산물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롯데마트 협력 "중소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 지원"나서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밥맛 최고! 쓰러짐에 강한 조생종 고품질 쌀
- ▶ 아열대채소 가공 체험 프로그램, 인기 만점!
- ▶ 토양 내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밀도 정확히 판별
- ▶ 버려지던 고구마 잎, 기능성 식품소재로 재탄생
- ▶ 경기농기원, 중국 산동성과 벼, 버섯 신품종 개발 등 공동연구키로
- ▶ 논 콩, 안전하게 수확하려면!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전남도, 귀농·귀촌인 유치 잔걸음

- ▶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에 대한 적극적 소통 나서
- ▶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
- ▶ 편의점 도시락으로 '우리 쌀' 소비 살린다.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핀란드, 식품 소비 동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한국농수산대학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수시)

- 모집학과 : 식량작물학과 등 11개 학과
 - 정 원 : 390명
 - 원서접수 : 전형별 8. 31. ~ 10. 12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검정고시 합격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전형별 상이
 - 특 전
 - 입학금 · 수업료 · 교육교재 · 실습비 등 학비 전액 국비 지원
 - 전교생 기숙사 생활 (기숙사비 전액 지원)
 - 다양한 장학금 지급
 - 전교생 단기 해외연수(2주 내외) 실시
 - 성적 우수자 해외 선진지 연수
 - 의무사항 :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 기간(6년)동안 농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f.ac.kr) 참조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8. 31.기준/단위 : 원)

부류	품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율%	
		판매 단위	당일 (08/31)	전주 (08/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대비	평년대비
식 량 작 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147	↓ 6.6	↓ 3.3
	콩(백태)	35kg	137,000	137,000	139,000	142,000	194,493	↓ 3.5	↓ 29.6
	고구마(밤)	10kg	28,000	28,200	36,120	26,800	27,320	↑ 4.5	↑ 2.5
	감자(수미)	20kg	25,200	25,400	25,440	23,600	26,547	↑ 6.8	↑ 5.1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680	690	-	792	1,049	↓ 14.1	↓ 35.2
	양배추	10kg	7,000	6,800	6,740	4,525	9,447	↑ 54.7	↓ 25.9
	오이(다다기계통)	10kg	21,333	22,000	29,467	32,889	33,925	↓ 35.1	↓ 37.1
	애호박	8kg	16,200	9,800	20,600	24,400	26,120	↓ 33.6	↓ 38.0
	토마토	10kg	19,000	21,200	18,560	16,900	29,297	↑ 12.4	↓ 35.1
	무(고랭지)	20kg	10,800	12,200	-	10,600	17,610	↑ 1.9	↓ 38.7
	당근	20kg	31,200	29,600	31,000	55,000	37,873	↓ 43.3	↓ 17.6
	건고추(화건)	60kg	787,500	787,500	820,000	807,000	908,333	↓ 2.4	↓ 13.3
	풋고추	10kg	24,200	22,800	24,800	64,250	46,887	↓ 62.3	↓ 48.4
	마늘(난지)	10kg	45,000	46,000	47,000	33,400	35,300	↑ 34.7	↑ 27.5
	양파	20kg	28,000	28,400	26,080	10,520	17,547	↑ 166.2	↑ 59.6
	대파	1kg	1,990	1,950	1,982	1,440	1,811	↑ 38.2	↑ 9.9
	파프리카	5kg	17,000	14,200	12,080	29,050	36,577	↓ 41.5	↓ 53.5
	방울토마토	5kg	14,800	13,400	12,000	10,350	21,040	↑ 43.0	↓ 29.7

부류	품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율(%)	
		판매 단위	당일 (08/31)	전주 (08/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대비	평년대비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6,800	66,800	66,800	-	78,733	-	↓ 15.2
	배(신고)	15kg	30,200	30,800	39,600	56,800	51,900	↓ 46.8	↓ 1.8
특 용 작 물	참깨(백색)	30kg	530,000	532,000	532,000	530,000	554,467	0.0	↓ 4.4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38,000	346,067	↓ 4.1	↑ 21.4
	새송이버섯	2kg	7,800	7,400	7,480	8,700	9,065	↓ 10.3	↓ 14.0
축 산 물 (소 매 가)	소고기(한우등심)	100g	7,305	7,223	7,073	6,770	6,573	↑ 7.9	↑ 11.1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64	2,272	2,101	2,080	1,943	↑ 4.0	↑ 11.4
	닭고기	1kg	5,156	5,123	5,021	5,098	5,730	↑ 1.1	↓ 10.0
	계란(특란)	30개	5,763	5,755	5,604	5,974	5,533	↓ 3.5	↑ 4.2
	우유	1리터	2,548	2,547	2,548	2,549	2,338	0.0	↑ 9.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8. 31.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락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741 천원	5,692 천원	4,371 천원	↑ 0.9	↑ 31.3
	거세	6,917 "	6,949 "	5,587 "	↓ 0.5	↑ 23.8
송아지 (6 ~ 7월)	암	2,720 "	2,651 "	1,880 "	↑ 2.6	↑ 44.7
	수	3,434 "	3,252 "	2,704 "	↑ 5.6	↑ 27.0
육우(600Kg)		3,395 "	3,337 "	2,950 "	↑ 1.7	↑ 15.1
젖소수송아지(7일령)		300 "	291 "	19 "	↑ 3.1	↑ 1478.9
돼지(110kg)		452 "	432 "	422 "	↑ 4.6	↑ 7.1
육계(원/kg)		1,138 원	1,211 원	1,523 원	↓ 6.0	↓ 25.3
계란(원/특란10개)		1,207 "	1,209 "	1,392 "	↓ 0.2	↓ 13.3
오리(원/kg)		2,333 "	2,333 "	3,342 "	-	↓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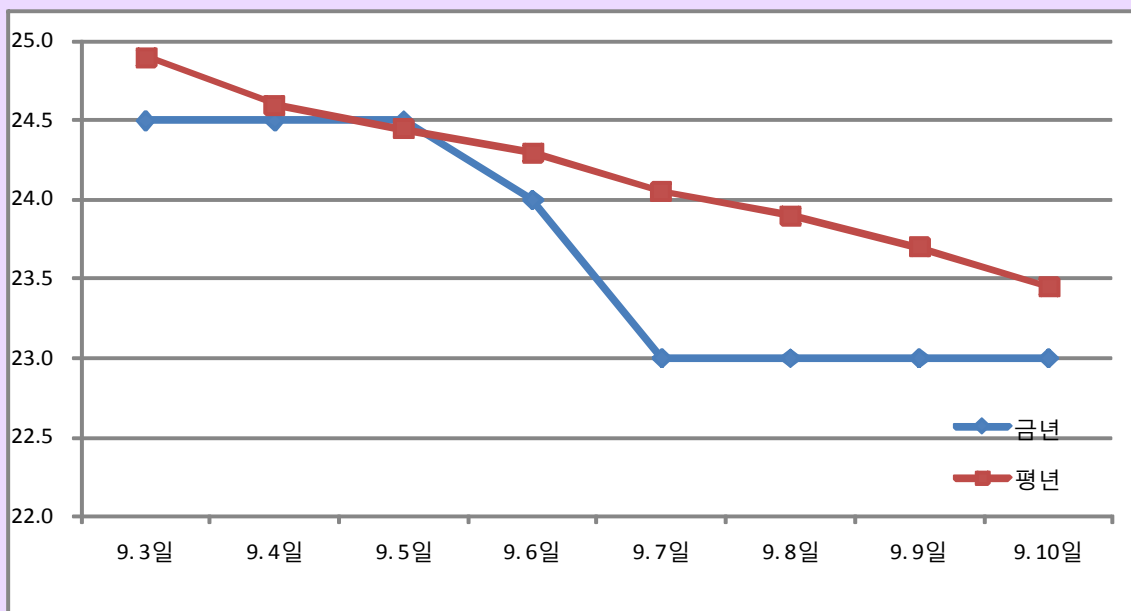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23.8	24.3	-0.5	26.9	27.9	-1.0	20.7	20.7	0.1	5.5
9. 3.(목)	24.5	24.9	-0.4	27.0	28.4	-1.4	22	21.4	0.6	9.3
9. 4.(금)	24.5	24.6	-0.1	28.0	28.1	-0.1	21	21.1	-0.1	8.3
9. 5.(토)	24.5	24.5	0.0	28.0	28.1	-0.1	21	20.8	0.2	4.8
9. 6.(일)	24.0	24.3	-0.3	27.0	28.0	-1.0	21	20.6	0.4	4.5
9. 7.(월)	23.0	24.1	-1.1	26.0	27.7	-1.7	20	20.4	-0.4	4.6
9. 8.(화)	23.0	23.9	-0.9	26.0	27.6	-1.6	20	20.2	-0.2	3.0
9. 9.(수)	23.0	23.7	-0.7	26.0	27.3	-1.3	20	20.1	-0.1	3.9
9. 10(목)	23.0	23.5	-0.4	26.0	27.0	-1.0	20	19.9	0.1	4.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애호박·토마토 재배 동향

□ 애호박, 9월 정식의향 증가, 10월은 비슷

- 전남 광양에서 정식을 앞당기려는 농가가 일부 있겠으나, 주 정식지역인 충남 부여, 충북 청주에서는 재배면적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9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 정식지인 충북 청주에서는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정식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하겠으며, 금년 작황 부진으로 축성작형 출하를 조기 종료한 전남 광양에서는 정식을 10월에서 9월로 앞당기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의령에서는 시설지원사업으로 하우스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광양에서 일부 농가가 정식시기를 9월로 앞당기겠으나, 충청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토마토, 9~10월 정식의향 전년 대비 1% 감소

- 전남 강진, 충남 공주에서는 일반토마토 재배농가가 대추형 방울토마토 등으로 작목 전환하려는 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9~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식 비중이 높은 부산광역시에서의 면적 변화는 크지 않겠으나, 경남 밀양, 전남 보성에서 작년 출하기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풋고추 등으로 작목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무 · 배추

○ (무)

- 8~9월 출하될 고랭지무 포전거래가격은 출하기 가격상승 기대로 작년보다 높은 평당 10,000~12,000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9월 무 가격은 출하량이 많았던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 및 전월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배 추)

- 9월 배추 도매가격은 고랭지 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6,310원/10kg) 및 평년(8,599원/10kg)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념채소 : 전고추 · 대파

○ (전고추)

- 금년산 재배면적 감소로 햇전고추 출하량이 다소 감소하여 8월 가격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월 재고량이 평년보다 많아 수확기 이후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대 파)

-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어 가격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과 전북지역 출하가 전년보다 연장되어 상순까지 전월 보다 약보합세가 전망되나, 남부지방 여름대파 출하 종료 이후 중순부터 소폭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보성군, '청정 녹차고추' 수확 한창

-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2015년 농촌진흥청 주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청정 보성녹차고추 브랜드화'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 40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 이번 '청정 보성녹차고추 브랜드화' 사업은 농촌진흥청 신기술사업으로 개발되어 효과가 검증된 일라이트부직포를 이용한 노지 고추 터널재배 시범사업으로 기존 비닐을 이용한 터널재배법보다 수확량이 최고 2배까지 올라 재배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품질 향상을 위해 녹차발효액을 살포하고 기존의 줄 유인방법에 비해 53%정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절화망을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서리예방 및 조기정식, 수량증수, 병해충예방, 노동력 절감, 우박예방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배농가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일라이트 부직포 활용 재배방법이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후기 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녹차를 활용한 기능성 고추의 생산 시험 재배로 금후 최고 품질의 명품 보성녹차고추를 생산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보성군 5개 고추작목반 91농가에서는 17.8ha에 청정 보성녹차고추를 시범 재배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판로개척으로 안성농협 물류센터에 건고추 1.2톤을 출하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 출처 : 보성군농업기술센터

■ 광양매실, 추석 맞아 '2015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 참가!


- 8. 26~29. 서울 코엑스에서 매실가공제품 선물세트 선보여 -
- 광양 매실가공제품이 명절 대표 선물로 자리 잡도록 노력 -
- 광양시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2015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에 광양매실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 참가는 국내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대도시를 대상으로 광양시의 대표 농산물인 광양매실을 홍보하고 가공제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된다.
-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의 광양청매실농원, 다압매울 등 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및 단체 총무/구매담당자, 온라인쇼핑몰·홈쇼핑·통신판매업 관계자, 백화점/마트 MD,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매실가공제품을 홍보하게 된다.
- 주요 제품은 매실청, 매실농축액, 매실장아찌, 매실잼 등 다양한 매실선물세트로 구성됐다.
- 허명구 마케팅전략팀장은 "이번 상품전 참가를 통해 다양한 매실 가공제품이 한가위 대표 명절선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광양매실은 전국 최고의 일조량, 백운산 계곡과 섬진강의 맑은 물,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품고 매실 재배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또 구연산과 칼슘의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광양시의 대표 농산물이다.

* 출처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 ‘완도 자연그대로’ 고추에 물만 바꿨는데...

- 고추 역병, 탄저병, 아삭한 식감까지 효과 검증 -

-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정책 및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작목에 실증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 지난 20일 고금면 신장리(농가 정미순)에서는 일반수와 바이오 기능수를 각각 관수시켜 키운 고추의 차이점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날 평가회에는 농업인, 기관사회단체장, 관계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바이오 기능수란 세포의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세포 면역 활성수로 완도군에서는 이 물을 이용하여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에 활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고추모종을 심고, 일반수와 바이오기능수를 2~3일 간격으로 각각 관수시켜 고추 재배실험을 시작하였다.
- 고추 열매가 달린 이후 6월 15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총 4회 생육 조사(초장, 착과수, 병해충 발생)를 통해 고추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바이오기능수를 줘서 키운 고추는 일반수에 비해 키가 평균 4cm정도 더 컸으며, 한 주당 열리는 고추의 수도 1.7개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평균 4회 정도 수확하는 고추의 수확량 조사 결과에서도 일반수에 비해 1.5배 가량 수확량이 많았으며, 병해충 예찰 결과에서는 일반수를 줘서 키운 고추가 바이오 기능수를 준 고추에 비해 탄저병은 약 3.5배, 역병은 약 3배 많이 발생하였고, 반점세균병 역시 약 1.5배 많이 발생하였다.

- 
- 고추 시험재배에 참여한 고금면 정미순씨는 “바이오기능수를 줘서 키운 고추가 확실히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큰 것을 확인했다.”말했다.
 - 농업기술센터 위윤열 소장은 “물만 바꿨는데도 고추 생육 및 병해충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실험 중에 있는 방울토마토, 버섯, 한우 등의 결과도 기대된다.”말했다.
 - 한편, 군에서는 지난 6월 상추에 대한 시험결과에서도 바이오기능수를 줘서 키운 상추가 일반수에 비해 경도 16.1% 증가, 잎 수 7.7%가 증가, 병해충 발생 22.2% 감소, 식미 선호도 87% 등 종합적인 결과에서 바이오 기능수가 일반수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 출처 : 완도군농업기술센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FTA 활용으로 농수산물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 부처합동 「FTA활용 농수산물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8.26)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8월 26일(수), 부처합동으로 'FTA 활용촉진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물식품의 경우 34.8% 수준으로, 제조업 수출활용률(제조업 전체, 8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 이의 원인으로써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수산물식품 업계의 특성상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돼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이에 따라, FTA활용을 통한 농수산물식품 업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식품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식품 수출업계의 FTA 활용 의지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본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금번 간담회에서는 농수산물식품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농식품산업 FTA 활용실태 및 지원정책'(농식품부), '수산물식품산업 FTA 활용실태 및 대응 방향'(해수부),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 및 FTA-agri 활용방안'(산업부)등을 발표했다.

-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낮은 FTA 활용율(24.4%) 제고를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품목·국가별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농관원과 관세청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 FTA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15.3월)*에 대한 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 * 친환경·GAP 등 정부 인증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기존 제반서류(농지원부 등 5종 이상)를 해당 농산물 인증서로 대체하여 수출 건당 40시간 50만원 비용 절감
- 9월중 무역협회와 협업하여 품목별(김치, 유자차, 홍삼 등) 원산지 인증 방법·절차 등을 담은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품목의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연내에 FTA 체결국 중 4개국(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에 대해 FTA 관련 정책·협정세율과 더불어 유통·소비동향, 경쟁국 농식품 동향 등을 심층 조사하여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 해수부는 미국(63.7%), EU(78.2%) 대비 FTA 활용률이 크게 낮은 ASEAN 지역(0.7%)의 FTA 활용도를 끌어 올리는 한편,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중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원산지 증빙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의 대중국 수출지원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 발효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산업부는 정부의 다양한 FTA 활용지원정책과 농수산물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등을 농수산식품 업계가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내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내에서도 전략적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진노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진단하고,

-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중국 등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및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도 힘써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 발전을 위해 정부와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가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FTA 체결로 우리 농식품이 13억 인구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도 충분히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수립한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에 따라 다각적인 수출지원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이러한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수요자와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는 우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산업이 FTA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자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담·컨설팅, 원산지관리 교육 등 FTA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금번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 간담회를 계기로 FTA 혜택을 받는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롯데마트 협력 “중소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 지원”나서

- 2015 중국 롯데마트 상품기획전문가(MD) 초청 입점상담회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는 중국에 115개 유통망을 보유한 롯데마트와 협력하여 우리 중소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2015 중국 롯데마트 상품기획전문가(MD) 초청 수출상담회”를 8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 행사는 지난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 두 번째를 맞는다.
 - 지난해에는 중국 롯데마트 상품기획전문가(MD)에게 상품성·시장성·독창성·안전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막걸리·유아용 소시지·과일칩 등 40여 제품을 포함한 103개 제품이 한국식품전을 통해 중국 34개 롯데마트 매장에 신규 입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중국 롯데마트 상품기획전문가(MD) 13명과 한국 식품 전문 취급 바이어 5명 등 총 18명의 바이어와 국내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 67개사가 참여한다.
- 상담회 前, 중국 롯데마트 상품기획전문가(MD)들은 그간 롯데마트에서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현지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직접 선정하여 수출상담을 진행해 줄 것을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참여업체가 결정되었다.

- 특색있는 상품으로는 對중국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버섯’, 전통명인 제품인 ‘한과’, 떡·쌀국수·컵밥 등 ‘쌀가공품’, 향후 중국의 수입위생기준 개정에 따라 수출 가능성이 높은 ‘김치’ 등이 있다.
- 금번 수출상담회에서 발굴된 우수 상품은 올해 10월~12월까지 중국 롯데마트 50여개 매장에서 개최될 “한국식품 특별 판촉전”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며, 판매실적 및 소비자 반응에 따라 중국 롯데마트 매장에 정식 입점하게 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여 對 중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권역별 상생협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기에 수출 성공사례도 널리 전파하여 상생협력에 대한 지자체와 농식품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실적) 경북<7.20>, 경남<7.28>, 전남<8.5>, 충남<8.21>, 전북<8.31>, 경기<9.1>,
(계획) 강원<9월초>, 충북<9월 중순>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밥맛 최고! 쓰러짐에 강한 조생종 고품질 쌀

- 전남농기원, 24일 신육성 계통 “전남3호”농가현장평가회 실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24일 담양군 금성면 봉황리 현재순씨 농가포장에서 자체 육성한 조생·고품질 우량계통 “전남3호”에 대한 농가 현장평가회를 실시하였다.
- 이날 평가회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벼재배 담당자와 연구원, 재배 농가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새로 만들어진 고품질 쌀 품종에 대한 재배안정성 평가와 더불어 미질 등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가졌다.
- 이날 평가를 갖는 전남3호는 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에서 “전남1호”에 이어 두번째로 조기재배와 평야지 조생종 및 2모작 재배용으로 우리 도에 맞는 고품질 쌀 품종을 만들기 위한 결실로 “전남1호”의 쓰러짐에 약한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2013~14년(2년) 벼 우량계통 지역적응 조기재배 시험에서 575kg/10a의 높은 수량성을 보였다.
- 특히 전남3호는 도열병과 흰잎마름병(K3)에도 강하고 수발아도 잘 되지 않아 현재 조기재배에서 수확기 때 강우에 의해 문제되고 있는 수발아를 해결하는데 운광, 조평벼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전남3호는 전남1호나 고시히까리 보다 수확량이 많고 쓰러짐에 강하며 밥맛도 이들 품종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삭패는 시기는 전남1호나 조평벼에 비해 7일 정도 늦어 우리 도내 2모작 재배에도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신서호 박사는 이날 평가회를 통하여 신육성 계통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벼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3년차 시험이 완료되는 금년에 품종등록을 실시하고, 실증포장에서 생산한 종자는 내년 조기재배 단지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아열대채소 가공 체험 프로그램, 인기 만점!

- 미네랄, 베타카로틴 등이 많은 기능성 채소로 적격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전남지역에 도입한 아열대채소인 인디언시금치, 모로헤이아, 오크라를 활용한 농가형 가공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 인디언시금치와 오크라에는 식이섬유와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함량이 높고 모로헤이아는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물질이 많은 기능성 채소이다.
- 이 과제는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하여 지난해 부터 아열대채소를 활용한 가공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내 농촌교육농장에서 광주지역 초·중등학생과 도시소비자 1,085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을 실시하였다. 체험내용은 아열대 채소 가공소금과 쿠키만들기로 체험에 참여한 대상은 초등학생 41.0%, 중학생 21.3%, 일반성인 15.9%, 가족단위 및 단체 33.4% 이였다. 함께 체험하고 싶은 사람으로는 형제자매 56.8%, 친구와 동료 40.5%로 가장 높았으며, 체험비용으로는 1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또한 체험내용별 재미, 체험 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선호도면에서는 비교적 제조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아열대채소 가공소금 만들기 프로그램이 쿠키에 비해 약간 좋은 반응을 보였다.
- 특히, 체험 장소로는 농촌현장 50.7%, 해당학교 교실을 38.6%가 희망하고 있어서, 종전에 농촌 현장에서만 실시하였던‘찾아오는 농촌 체험활동’과 함께 초·중등학교 교과정이나 방과 후 학습 등과

연계하여‘찾아가는 맞춤형 농촌 체험’활동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연중 지속적인 체험 활동과 농가소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현우 친환경농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개발된 농산물 가공기술을 농가형 체험·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의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토양 내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밀도 정확히 판별

- 토양 1g당 병원균 포자 10개 내외 검출...인삼 이어짓기 피해 예방 -

- 인삼 재배 예정지를 정하거나 계속 재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토양 내 ‘인삼 뿌리썩음병원균’의 밀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길이 열렸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는 인삼 이어짓기 장애1)의 주요 원인인 ‘인삼 뿌리썩음병원균’의 밀도를 토양에서 정확하게 검출하는 선택배지와 분자마커를 개발했다.
- 인삼 뿌리썩음병에 의한 이어짓기 장애로 신규 재배 면적이 줄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 인삼 공급의 불균형과 생산 기반 위축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 또한, 인삼을 재배하는 토양에 뿌리썩음병원균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재배 중인 인삼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 이때 피해액은 1ha당 9,420만 원으로 추정된다.
-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촌진흥청은 2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인삼 뿌리썩음병은 ‘시린드로카폰 데스트럭턴스(Cylindrocarpus destructans)’라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

- 이 병원균은 생장이 느린 저온성 균으로 다른 병원균과의 생장속도 차이로 병원균 분리에 어려움이 있어 동아대학교와 공동 연구로 전용 선택배지를 개발했다.
- 이 선택배지는 시린드로카폰 데스트럭턴스가 생성하는 ‘라디시콜’이라는 이차대사산물을 이용한 것으로, 배지에 첨가하면 다른 균은 생장하지 못하고 ‘인삼 뿌리썩음병원균’만 배양되는 특징이 있다.
- 또한, 시린드로카폰 데스트럭턴스의 유전체를 해독해 이 병원균에만 있는 유전 부위를 이용해 특이적인 분자마커를 개발했다.
 - *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에서 약 5건 정도의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검출마커가 개발돼 있으나 이들 마커는 항존유전자²⁾ 부분이 이용돼 다른 병원균과의 구분이 부정확하고 이로 인해 토양 내 밀도 검정이 불가능함.
- 이 개발한 선택배지와 분자마커를 이용하면 토양 내 ‘인삼 뿌리썩음병원균’의 밀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 우선, 분석할 토양에 선택배지를 첨가해 병원균을 배양하는 전처리 과정(2일) 후 토양 DNA를 추출한다.
- 추출된 토양 DNA를 사용해 개발한 분자마커와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 (real time PCR)로 ‘인삼 뿌리썩음병원균’의 밀도를 판별한다.
- 이렇게 밀도를 검출한다면, 토양 1g당 병원균 포자 10개 내외로 밀도 판별이 가능해진다.
 - * 기존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판별 방법은 선택배지를 이용한 토양 전처리 과정이 없었기에 병원균의 밀도가 적을 경우 검출이 불가능했음. 즉, 토양 1g당 병원균 포자 1,000개 이하의 밀도 판별이 되지 않거나 재현성이 떨어졌음.
- 개발한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선택배지에 따른 토양 전처리 과정으로 2일 정도 더 걸리지만 100배 이상 검출 정확도가 높아진다.

- 이 기술은 국내 특허출원3)했으며, 라디시콜을 이용한 선택배지 연구 결과는 2014년 식물병리학회지에 게재됐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역 인삼 연구기관과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하도록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 기술이전이 완료되면 농가에서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으로 문의하면 토양 내 '인삼 뿌리썩음병원균'의 밀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술은 앞으로 인삼 재배 농가의 이어짓기 피해를 예방하면서 인삼 재배 시 최적 예정지 선정이나 계속 재배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인삼 재배 기간에도 병원균 밀도 검정을 통해 병원균 증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수확 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 더불어, 앞으로 이어짓기 장애를 낮추는 기술 확립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알맞은 재배 면적을 확보하며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이종기 부장은 “앞으로는 개발 기술의 보급을 확대하면서 더욱 간편하게 ‘인삼 뿌리썩음병원균’을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버려지던 고구마 잎, 기능성 식품소재로 재탄생

- 농촌진흥청, 고구마 잎 분말 첨가 식빵 제조기술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버려지던 고구마 잎을 식품 소재로 이용하는 ‘고구마 잎 식빵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10-2014-0149131)를 출원했다.

-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는 주로 뿌리를 먹는데 줄기와 잎에도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 특히, 고구마 잎은 철분과 베타카로틴, 비타민이 뿌리나 줄기보다 많은데, 호박잎처럼 찌서 찜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말렸다가 물에 불려 볶아먹기도 한다.
- 그러나 극히 일부분만 식용으로 이용하고 대부분 버려지고 있어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잎의 이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해왔다.
- 이번에 개발한 고구마 잎 분말을 넣어 식빵을 만드는 방법은 고구마 잎을 동결 건조해 밀가루 중량 대비 2%~3% 첨가하는 것이다.
- 고구마 잎 분말을 2%, 3%, 5%, 7% 넣은 식빵의 기능성 물질과 소비자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 2%~3% 첨가했을 때, 반죽 특성과 제빵 적성, 색, 향미, 입안에서의 조직감 등 전체적으로 기호도가 좋았다.
- 또한, 밀가루로 만든 식빵보다 항산화 활성은 7배, 총폴리페놀 함량 4배, 루테인 함량 10배, 베타카로틴 함량이 80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한선경 박사는 “버려지던 고구마 잎을 이용하면 자원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부가소득을 올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구마 잎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용 품종을 개발하고, 식품 소재로 이용하는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경기농기원, 중국 산둥성과 벼, 버섯 신제품 개발 등 공동연구기로

- 경기도농기원, 27일 중국 산둥성서 한·중 농업발전 공동 심포지엄 열어 -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7일 중국 산둥성농업과학원에서 중국 산둥성 농업과학원과 한·중 농업발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번 한·중 농업발전 공동심포지엄에는 경기도에서 임재욱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등 대표단 9명, 산동성농업과학원에서는 완쭈버(万書波) 원장 등 150명이 참석했다.
- 경기도는 이 날 ‘경기도 현대농업발전과정 및 특징’, ‘한국의 농산물 안정성 인증제도 소개 및 관리’ 등 8개 주제를 발표했고 산동성에서는 ‘중국 현대농업 발전현황’, ‘산동성 농산업의 우수성 및 혁신전략’ 등 13개의 주제를 발표했다.
- 양 기관은 2009년 농업과학기술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동연구, 유전자원 교환, 공동세미나,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제2회 한·중 공동심포지엄은 3년 후인 2018년 경기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공동심포지엄과 함께 양 기관은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벼 계통 공동 육성, 유망 벼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교류 연구, 채소 및 과실의 폴리페놀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등 3건의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기로 했다.
- 농기원은 이번 공동연구 협약과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통해 경기도와 산동성의 우호협력과 농업발전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재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산동성농업과학원과의 과학기술교류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 논 콩, 안전하게 수확하려면!

- 무성해진 콩밭 순지르기 작업 필수 -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올해 여름 장마와 폭염을 지나오면서 논콩 대부분이 웃자라거나 잎이 무성해지는 등 연약해진 상태의 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 지금 콩 줄기와 잎 상태가 콩 수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성해진 콩은 순지르기 작업을 실시해 주어야 하고, 단계별 병해충 방제와 재해 예방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 도 농업기술원은 논 콩의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콩의 현재 상태에 알맞은 포장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관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콩을 일찍 심거나 지력이 높은 곳에 조밀하게 심겨진 콩밭은 지난 무더위 기간 동안 웃자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약한 비바람에도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잎이 5~7매 정도 되었을 때 줄기 윗부분을 낫이나 커트기 등을 이용하여 잘라 주는 것이 좋다. 순지르기 작업을 하면 뿌리가 굵어지고, 잔뿌리 발생이 많아지고 튼튼해져 콩 꼬투리가 많이 달리게 된다.
- 또한 요즘 콩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노린재류를 들 수 있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등 20여 종에 이르는 노린재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와 가로줄노린재, 풀색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이다. 이들은 꼬투리가



커지는 시기에 침으로 즈액을 빨아 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피해를 받은 콩꼬투리는 빈껍데기가 되거나 콩알이 변색되고, 때에 따라서는 발아가 되지 않기도 한다.

- 이들 노린재는 농약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쉽게 이동을 하는 특성 때문에 여러 농가가 동시에 방제를 하는 것이 방제효과를 높이는데 유리하며, 방제 시기는 꽃이 핀 후 17일부터 37일까지 2회 방제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농업기술원은 덧붙였다. 또한 콩이 습해에 무척 약한 작물이고 습해로 인한 수량감소는 생육초기보다는 꽃이 피는 시기부터 종자가 생겨서 자라는 시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육중기인 지금 포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전남도, 귀농·귀촌인 유치 쟁점음

- 28일 aT센터 개막 2015 A-Farm Show에서 홍보활동 펼쳐 -

- 전라남도가 28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식품유통센터(aT)에서 개막한 2015 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에 전남 홍보관을 설치해 2018년까지 4년간 귀농·귀촌인 2만 가구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 2015 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는 동아일보와 채널A 방송사가 주최한 행사다. 농업이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하고 농촌이 청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의 무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 이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참가해 도 홍보관을 관람 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귀농귀촌인 협의회원들을 격려했다.
- 이번 행사는 정부가 공식 지원하는 민간 농업 선진화 박람회로, 제1전시관의 6차산업관과 제2전시관의 지자체 귀농귀촌관으로 구성됐다.
- 전라남도는 오는 2018년까지 귀농귀촌인 2만 가구 유치 목표 실현을 위해 곡성, 구례, 강진, 영암, 함평, 영광, 장성 등 7개 군과 함께 홍보관을 마련했다. 귀농귀촌 홍보물 및 주요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주택·농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종합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꾸준한 귀농귀촌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최근 급증하는 귀농귀촌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올해 행사 관람객은 지난해 6만여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에 대한 적극적 소통 나서

- “농산물 수급조절, 쉽게 이해하기”책자 발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정부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을 소개하는 “농산물 수급조절, 쉽게 이해하기”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책자는 농산물 생산자·소비자의 수급조절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농산물 가격변동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 동 책자는 농산물 수급조절과 관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자주 제기하는 9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 전반부에서는 농산물 가격 변동의 불가피성을 소개하면서, 농산물 수급조절방법(수급조절위원회, 수급조절매뉴얼) 및 자율적 수급조절정책의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 후반부에서는 근본적 수급안정대책 방향, 농축산물의 물가비중 축소에 따른 가계부담 감소,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책자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농협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정책자료(7479번)

-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 가뭄 등을 거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우려와 달리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책에 대한 소통이 부족해 수급정책이 평가절하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책자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

- 관계부처 합동으로 9.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공항만 중점 단속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관세청·경찰청·해경본부 등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개최(8.11)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일제단속은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15.9.1~'16.3.30일까지 약 7월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부처별 주요 역할분담 내용>

- 농식품부·농협 : 인삼종자 DB자료를 활용, 농가별 개갑여부 등 수시 사후관리
- 관세청 : 중국 화물 컨테이너 검색기준 강화, 화물 컨테이너 검색물량 확대
- 국민안전처(해경본부) :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 강화
- 경찰청 : 인삼종자 국외유출 및 종자업 미등록 판매상 합동단속 및 사건수사
- 농진청 : 인삼종자 반출 승인 관리 강화 * 연구에 한해 제한적 허용
- 지자체/종자원 :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종자 판매행위 중점단속(특사경 활용)

-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인삼종자의 불법유출을 조속히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 「농수산물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불법 국외 반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도 처벌)』

- 또한, 지난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미등록자의 종자 판매행위에 대해 충분히 계도를 한 만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 금년도 인삼종자 생산량은 222톤 정도로 신규 식재(약 160~180톤)*, 새싹삼(약 20~30톤) 등 수요량 감안시 크게 과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5년 식재 예정면적 3,123h기준으로 산정(종자 1톤으로 20ha식재)

-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대책'을 연초에 실시한 '인삼농가 교육'이 농가들의 체종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 '14년 일제 단속 실시 : '14.10~'15.3(6개월간) * 적발물량 : 36톤

* '15년도 인삼경작농가교육 실적 : 31회 4,491명

-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하여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 선의의 인삼경작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삼종자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R&D사업 등을 통해 인삼종자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편의점 도시락으로 '우리 쌀' 소비 살린다.

- 26일,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산 쌀 활용식품 전시회도 열려 -

□ 줄어드는 국산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편의점업계와 농업계가 손을 잡았다.

- 도시락, 삼각김밥 등 100% 우리 쌀로 만든 편의점 쌀 가공식품을 활용해 소비자의 입맛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회장 박재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임종완), 국립식량과학원(원장 임상중)과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대한상의 회관에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 기업과 농업계간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 대한상의 · 농협 · aT로 구성,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비즈니스모델 발굴, 협약 체결, 홍보 등 지원

□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는 “2014년 현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5.1kg으로 2005년 이후 매년 줄어드는 반면에 편의점의 도시락 등 쌀 가공식품의 판매량은 최근 연 2%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의 쌀 가공식품 판매확대로 우리 쌀소비 확대가 우리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1인당 쌀 소비량(kg) : ('05) 80.7 → ('10) 72.8 → ('13) 67.2 → ('14) 65.1

* 도시락 등 편의점 쌀가공식품 판매량(개) : ('13.3) 3억 4천만 → ('14.3) 3억 5천만 → ('15.3) 3억 7천만



□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국산 쌀’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 편의점업계와 농업계가 ‘국산 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국산 쌀 사용 제품 홍보 강화’, ‘쌀 품종 개발 및 계약 재배’ 등에서 4개 기관이 상생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1)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업체는 ‘17년까지 국산 쌀 구매를 15% 이상 확대한다. 현재 편의점 업체는 연간 2만 7천톤 규모(41만명 쌀 소비 규모, 가공용 쌀 소비 약 6%)의 국산 쌀을 소비하고 있으며, 편의점업체는 도시락 등 미반류의 판매 강화, 우수 미반류 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17년까지 연간 3만 1천여톤의 국산 쌀을 구매할 계획이다.
- (2) 국내 브랜드 편의점업체의 미반류 제품은 100% 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만큼 농업계와 공동으로 우리 쌀을 사용한 미반류 제품 홍보 강화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 (3) 또한, 미반류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하여 가공적성을 고려한 쌀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및 가공 기술개발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품종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의점업체와 농업계는 우수한 품종 개발이 신상품 개발과 계약 재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 이번 협약식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각 편의점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 쌀 미반류 제품을 전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편의점 제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자리도 가졌다.

□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편의점업계와의 쌀 소비 활성화 상생협력을 통해 쌀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국산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 “정부도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우수한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공동본부장)은 “최근 국내 인구구조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형태로 달라지고 있고, 소비행태도 근거리 쇼핑을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 “이런 변화에 기업과 농업계가 미리 대비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본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재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편의점에서 도시락, 삼각김밥 등 쌀 가공식품 판매는 국산 쌀 가공식품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41만명이 국산 쌀 2만 7천톤을 소비하여 농가들의 소득증대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 “편의점업계와 농업계가 협력하여 공동 프로모션 행사를 추진하고, 우리쌀 공동인증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여 국산 쌀 소비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핀란드, 식품 소비 동향

- 핀란드 국립자원연구소(LUKE)에 따르면 핀란드인들은 2014년 평균 178kg의 유제품, 77kg의 육류, 65kg의 채소, 그리고 61kg의 과일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 총 곡식 소비량은 1인당 80kg으로 2013년 대비 변동이 없었으나, 세부 품목별 소비량은 변동이 있었음. 귀리 소비량 1kg 증가한 반면, 호밀 소비는 1kg 가량 감소함. 밀과 보리 소비는 변동이 없었으나 쌀 소비는 0.4kg 하락함.
- 육류 소비는 감소한 반면 계란 소비 증가를 보임. 핀란드인들은 2014년간 약 77kg의 육류를 소비하였으며 이는 2013년 대비 1.5kg감소한 것임. 가금류 소비는 0.6kg 증가하였으나 돈육 소비는 약 3% 감소함. 계란은 2013년 대비 2% 증가하여 1인당 11kg을 소비하였으며 버터 소비는 4kg으로 소폭 하락함.
- 핀란드인들의 2014년 우유 소비량은 1인당 127L이며 이는 2013년 대비 1% 감소함. 이 중 51%는 저지방 우유, 39%는 탈지우유, 그리고 나머지 10%는 지방분을 빼지 않은 전유임.
- 최근 몇 년간 전유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탈지우유 소비 또한 2013년 대비 소폭 하락함. 요거트 및 응유(curdled milk) 소비는 약 5% 하락하였음. 이는 치즈가공식품 등 신선유 가공제품의 인기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전체 유제품 소비량은 연간 1인당 178kg으로 2013년 대비 약 2% 감소하였으며 크림과

버터 소비는 약 3% 감소함. 치즈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인당 25kg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 신선과일 및 채소 소비량은 2013년 대비 2.5kg 증가하여 1인당 54kg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 중 감귤류는 13kg, 바나나와 사과 소비량은 27kg을 차지함. 전체 과일 소비량 중 7kg은 통조림과 건과일 제품임. 신선채소 소비량은 2013년 대비 7% 증가하여 1인당 약 65kg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브리핑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8. 31.(시카고 선물거래소)

중국침체 및 날씨 영향에 주요 곡물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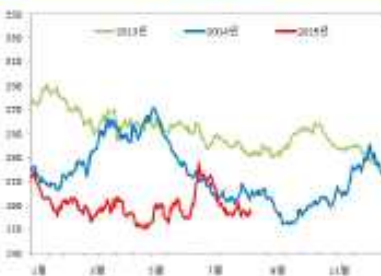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8.21)	전일대비	전월평균 (15.7)	2014 평균
밀	183.50	▼1.3%	201	216
옥수수	143.77	▼1.6%	160	164
대두	332.60	▼1.8%	372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9월물, 대두: 8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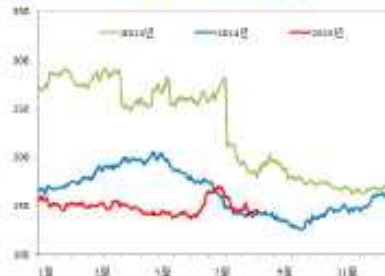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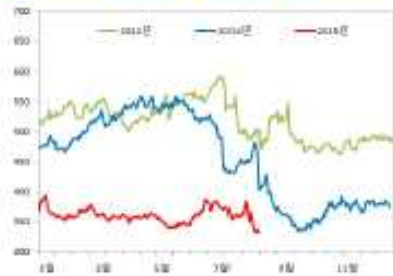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범세계적 밀 과잉공급과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로 목요일 2% 반등 이래 하락세로 돌아섬. 달러화 약세와 예상보다 적은 캐나다산 밀 생산 및 거래는 현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캐나다 통계청은 2015년 밀 수확량을 2천5백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년전 2천9백만 톤과 평균 거래량 2천6백만 톤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힘.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물 계약이 장중 일주일래 최고가를 보이며 혼조세를 보인다 하락 마감함. 미국농무부(USDA)는 매우 긍정적인 옥수수 작황 상태와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 옥수수가격 또한 다소 부정적인 전망임.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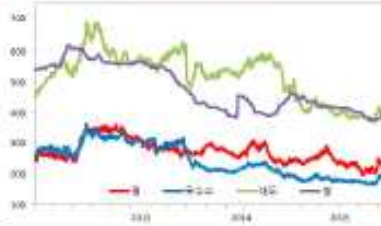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중국 상품시장의 침체와 중서부 지역의 우호 날씨로 인해 폭락이 전망되어 하락 마감함. 대두 생산량은 많은 거래자들이 미국 정부의 전망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문 농부들은 에이커 당 평균 46.5부셀, 약3.89십억 톤, USDA는 에이커 당 평균 47부셀로 약 3.91십억 톤이 수확 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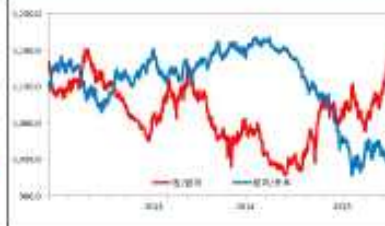
관련동향

- 김프산 수출가격은 특별한 소식 없이 보합세 유지.
- 국제유가는 중국 경기지표 부진, 미 공급과잉 우려, 주요국 증시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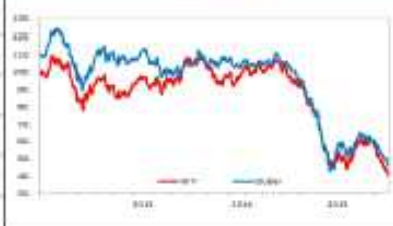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6 ▲1.5%	환율	원/달러	1185.1 -
	옥수수	168 ▲0.6%		달러/유로	1.1228 ▲1.0%
	대두	370 ▲1.4%	국제유가	WTI	40.45 ▼1.7%
	쌀	376 ▼1.1%		Dubai	46.23 ▼1.1%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BTC Gulf), 대두(US Gulf), 환(Thailand 100% Grade B), WTI(9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8.20(수출가격), '15.8.21(환율), '15.8.2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일제히 발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한국농수산대학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수시)

- 모집학과 : 식량작물학과 등 11개 학과
 - 정 원 : 390명
 - 원서접수
 - 농수산인재 · 도시인재 전형 : 8. 31. ~ 9. 9.(10일간)
 - 수시모집 일반전형 : 10. 5. ~ 10. 12.(8일간)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검정고시 합격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전형별 상이
 - 특 전
 - 입학금 · 수업료 · 교육교재 · 실습비 등 학비 전액 국비 지원
 - 전교생 기숙사 생활 (기숙사비 전액 지원)
 - 다양한 장학금 지급
 - 전교생 단기 해외연수(2주 내외) 실시
 - 성적 우수자 해외 선진지 연수
 -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에 따라 농업인 또는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 추천
 - 의무사항 :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 기간(6년)동안 농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f.ac.kr) 참조



주간

전남농업정보

49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

